



가슴속까지 땀~ 물맛이 폭포로 유명한 구례군 산동면 소재 수락폭포에서 피서객들이 15m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잠시 피하고 있다. 예부터 구례 수락폭포는 신경통, 근육통, 산후통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구례군의 대표 관광지로 인기가. <구례군 제공>

답답한 일상 떠나 우주로 더위 탈출~



‘고흥우주항공축제’ 29일~8월2일 나로우주센터 공원 일대

천문과학관·발사 현장 견학 등 151개 프로그램 운영 위터워킹 등 물놀이 다채...해창만 캠핑 페스티벌도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고흥군이 ‘2016 고흥우주항공축제’를 통해 나로호의 감동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 올해 축제는 ‘2016 고흥해창만 캠핑 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두배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나로우주센터 공원 일대에서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과학축제인 ‘2016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연다.

축제의 주무대는 나로우주센터로 지난 2013년 나로호를 우주로 쏘아올린 역사적 장소다.

고흥군은 국립청소년우주체험센터와 우주천문과학관 등 고흥지역만이 지닌 우

주 항공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고흥 전역을 축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특히 이번 축제가 여름 휴가철이자 여름방학 기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온 가족과 함께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시원하게 즐기자는 의미를 담아 ‘Let’s Go~흥! Cool~ Summer 우주여행’ 슬로건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중이다.

고흥군은 또 올해 축제에서는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우주’를 4가지 테마로 드론 체험과 바람개비 해변 산책길,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체험, 우주센터 발사 현장견학 등 151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특별행사로 진행되는 ‘나로우주센터 발사현장 견학’은 지난 19일부터 사전예약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예약 첫날 6시간 만에 3056명이 신청했으며, 한때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주 행사장인 봉래면 나로우주과학관에서는 우주과학에 관한 기본원리부터 로켓, 인공위성, 우주탐사 등을 주제로 한 90여종의 전시품(이중 작동체험전시품 32종)과 3D·4D 동영상판, 야외 로켓 전시장 등 다채로운 시설도 배치돼 있다.

보조행사장인 인근의 동일면에 있는 국립고흥우주체험센터에서는 3차원 대형가시화 시뮬레이션 4D시뮬레이터, 우주선 조정 체험 등 첨단시설 체험장을 운영한다.

또 도양읍내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는 최첨단 800mm 주망원경과 6개의 보조망원경으로 밤에는 성운, 성단 등 각종 별자리를, 낮에는 태양 흑점을 관측할 수 있

으며, 천체투영실에서는 가상 별자리 여행도 할 수 있다.

이번 2016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도 대폭 늘어났다. 한여름 축제의 장점을 살려 에어바운스, 워터슬라이드, 워터워킹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고흥해창만 오토캠핑장에서는 ‘캠핑 페스티벌’도 열린다. 아열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캠핑 페스티벌에서는 우주항공축제기간동안 캠핑장 이용객들이 우주과학관 등 우주시설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올 여름 휴가는 가족과 함께 2016 고흥우주항공축제장에서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클래식으로 듣는 ‘괴테’

보성문화회관, 내일 작은 음악회

보성군은 “27일 오후 7시 30분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클래식으로 듣는 괴테·비토르위고 작은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16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사업’으로 진행된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음악회사업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수요일 공연·전시(할인 또는 무료)를 열어 문화 제감도

를 높이고 문화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클래식으로 듣는 괴테·비토르위고 작은음악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 폭넓은 작품을 남긴 독일 문학의 최고봉 괴테와 오드, 노트르담 드 파리, 레미제라블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문호 비토르 위고에 대해 음악평론가 이석렬이 진행하고 실력파 트리오 더 모스트가 그들의 삶과 작품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 어린이 여기 모여라”

드림스타트 방학프로그램 운영...특강·요리교실 등 다채

보성군드림스타트는 25일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내달 2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동발달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아동권리교육, 학대 및 성폭력예방교육 등과 대상아동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입실 치즈만들기 체험 학습과 오감 발달 맛있는 요리교실, 슈가아트, 미디어

교실, 원예교실 등 12개 프로그램이다.

26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직접체험을 통해 미각, 촉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오감발달 맛있는 요리교실’ 프로그램이 열리며, 29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광주시청 자미디어센터 권정호 강사를 초빙해 미디어에 대한 바른 시각 기르기, 사진 스토리텔링, 동영상 만들기 등 ‘미디어 교실’시간이 마련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 생태로 ‘미르마루길’ 조성 본격화

郡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4km 20억 투입 내년 준공



고흥군이 영남면 우주발사전망대 일원에 국가생태탐방로 ‘고흥미르마루길’ 조성에 나섰다.

고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박병중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태탐방로(고흥미르마루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보고회에서는 실시설계 용역보고에 이어 사업 계획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와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고흥 미르마루길은 영남면 남읍 우주발

사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총연장 4.0km 구간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20억 원을 투입,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해의 자연경관을 품은 천한경 탐방로를 비롯한 용(龍-미르)과 하늘(天-마루)을 테마로 한 하늘다리, 미르낙조대, 용조형물, 전망쉼터 등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색 시설물이 들어선다.

군은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9월에 착공해 2017년말 준공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토지, 6000평

투자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